

# 전북도-조달청, 혁신조달 확산 '맞손'

# 군산 경제활성화 정책간담회

### 성과 확산·창업·벤처기업 육성 위한 업무협약... 상품 발굴·벤처창업조달상품 홍보 등 판로 지원 협력

전북도(도지사 송하진)는 조달청(청장 김경우)과 함께 도청 회의실에서 '혁신조달 성과 확산 및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혁신조달'은 공공기관이 공공성과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과 기술혁신을 동시에 추진하는 조달정책이다.

이번 협약은 전북지역에 혁신조달 정책을 확산시키고 우수한 창업·벤처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도와 조달청은 ▲도내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수요발굴 및 판로 지원, ▲도내 혁신제품 발굴 및 구매,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참여 및 실증지원, ▲도내 혁신조달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도내 우수한 창업·벤처기업 상품 발굴 및 벤처창업조달상품 후보 평가·추천, ▲도내 벤처창업조달상품 홍보 및 구매 등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게 된다.



3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혁신조달 확산 및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전라북도-조달청 업무협약식에 송하진 도지사와 김경우 조달청장 등이 업무협약 서명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창업·벤처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이 성장단계인 판로 개척에 전북도와 조달청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기업들이 최선을 다해 만든 제품을 알리고 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매출이 오르고 일자리가 생기며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선순환

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지사는 "오늘 협약이 전북 창업·벤처기업 나아가 전북 경제가 한 번 더 성장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우 조달청장은 "조달청의 혁신조달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밀거름이 되도록 실현 가능한 혁신조달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 내 공공기관을 비롯해 조달업체와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조달 제도는 행정 및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혁신제품에 대한 초기수요를 창출하고, 판로 확보도 지원함으로써 민간부문의 혁신과 성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내 혁신 시제품은 2019년 (주)카넥트를 시작으로, 지난해 7개 사가 추가돼 현재 총 8개사의 제품이 지정돼 있다.

한편, 조달청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업계 간담회와 혁신조달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주)유니온세티를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조달청은 이날 전북도에 이어 8일 광주광역시, 23일 강원도를 차례로 방문해 혁신조달 확산을 위한 권역별 간담회를 계속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군산시와 전북연구원이 군산형뉴딜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발굴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3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 방역을 준수한 가운데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성기 전북연구원장을 비롯한 전북연구원 박사들과 함께 군산시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북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북연구원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코로나 이후 지속가능한 시의 경제활성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준비됐다.

논의된 주요 현안은 ▲군산시 온라인 플랫폼 배달의명수 ▲새만금 그린산단 RE100 구축 ▲군산항 활성화 전략 ▲수산물수출가공클러스터구축 ▲지역산업 맞춤형 청년일자리사업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시에서 전국최초로 시행해 전국적 호응을 얻은 '배달의 명수' 플랫폼 사업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현제 새만금개발청에서 그린산단 종합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냐 본 사업이 조기에 실현되기 위해서

는 입주기업 지원 등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정책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글로벌 수산물시장의 확대에 대응해 '수산물 수출가공 클러스터'를 새만금산단에 구축해 전북에 수산물수출업을 새롭게 육성하자는 내용도 심도 깊게 논의됐다.

이울러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군산항 활성화를 이뤄내고 1,3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향후 '지역산업 맞춤형 청년일자리'와 연계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지역의 청사진 발표와 함께 전북연구원 관련 분야 전문위원들이 대응노력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는 협의도 진행됐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시의 중요 현안에 대해 전북연구원과 정책 간담회를 갖게 된 것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재생애너지와 미래차, 그리고 골목뉴딜이라는 우리시 정책 방향에 대해 전북연구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연구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성기 전북연구원장은 "오늘 정책 간담회를 계기로 향후 군산시가 위기와 변화에 한발 앞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고 정책 개발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2월중 분야별 정책토론회를 열어 시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코로나 이후 지역이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에 대한 가치담론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 도, 어업인 안전공제 보험 지원

전북도가 어업인 안전공제 보험을 지원해 어업근로자 생활안정 도모에 나선다.

도는 3일 어업인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어업인 안전공제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히며 어업인의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했다. 이 보험은 어업 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을 보상해 어업인, 어업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와 사회복귀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87세 어업인, 어업 근로자(양식업 종사자 포함), 수협조합원,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내수면 어선원 등이다.

보험료는 기본형의 경우 약 10만원 수준인데 보조금으로 8만원을 지원받아 자부담은 약 2만원 정도로 저렴한 반면에 보장수준은 상당히 높다.

가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신분증, 조합원 증명서 또는 면허 허가 신고필증 또는 어촌계장 증명서 등을 준비해 관할 지구별 수협 공제부서(군산 450-6636, 고창 561-2135, 부안 584-9300)를 방문하면 되며, 수협중앙회의 심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생태관광 통합브랜드' 사업 추진

전북도가 도내 우수한 자연경관과 보전 가치가 있는 생태자원을 활용해 생태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과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15년 민선 6기부터 자연경관과 생태자원을 보호하면서, 기존의 물리적 개발방식에서 자연자원에 기반한 보전중심으로 이동하는 관광의 패러다임에 발맞춰 생태관광지 육성사업을 추진해왔다.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해 도내에 조성된 수많은 길 들 중에서 생태 경관이 아름답고, 길기 좋은 길들로 14개 시·군 44개 노선 405km를 선정해 안내 체계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 관리와 지속적인 홍보활동에 힘써왔다.

또한, 선유도, 말도 등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고군산군도를 국가 지질공원으로, 지난 2017년 9월 국가 지질공원 인증 획득 이후, 서해안권 지질공원을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그간 육상 생태관광지와 천리길, 지질공원을 연계해 전북도의 아름다운 산과 들, 물, 숲을 아우르는 생태관광 벨트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소득증대 등 지속 발전 가능한 생태관광을 위해 '생태관광 통합브랜드' 사업을 추진한다. 생태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생태자

원 조사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5대 부가가치창출이 가능한 생태관광 체험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한다.

지속적인 보완과 홍보, 마케팅을 통해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수익 창출 프로그램으로 이끌 계획이다.

청정 전북의 땅, 길, 강, 산, 평야, 갯벌, 바다 등 자연의 생물다양성과 생명력 그리고 회복력을 상징하는 생태관광 캐릭터 '조록요정'을 개발해 각종 탐방 프로그램 등 홍보·운영에 활용한다.

한편, 도는 청정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전북의 자연유산 가치를 높이고 생태관광 관련 국가 국제 브랜드 획득을 추진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 도, 축산·경종 농가 상생 위한 사료작물 재배 확대

전북도가 국내산 조사료의 안정적 생산·공급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종농가 동절기 소득증대를 위해 사료작물 재배 이용을 확대한다.

도는 축산·경종농가 상생 차원에서 축산농가의 사료비를 절감하고, 동절기 휴경지를 이용한 사료작물 재배로 경종농가 소득확대를 위해 조사료 수

확재조비 등 11개 사업에 52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생산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료비 절감을 위해 유류·농경지 활용한 조사료 생산·이용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자활사업 확대

전북도가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연계한 자활사업을 확대하며,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도는 지난해 국민연금공단과 출장 세차사업을 시작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연계한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연금공단 내 지역본부,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한국감정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공공기관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자활사업 참여자에게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혁신도시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사회통합의 새로운 시도로 부상하고 있다.

이전에도 자활사업이 개별 공공기관과 일대일로 일거리를 나눈 사례는 간혹 있었지만, 이번처럼 국민연금공단 본부와 전국에 산재한 5곳의 지역본부가 함께 참여해 자활사업을 벌이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올해는 자활센터와 공공기관 일자리 사업이 국민연금공단 내 지역본부 등 산하기관으로 확대 시행한다.

전북에서 시작한 자활센터와 공공기관 일자리 사업이 국민연금공단 내 5개 지역본부 등 산하기관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공공기관으로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저소득층 자립기반구축 공동사업'은 일자리 확대를 통해 고용 창출 및 지역공동체의 일자리 감증을 해소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이경진 도 사회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자활사업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상호연대는 사회적가치 실현의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모집** 전주교육대학교 우석대 원광대 군산대 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상담**

스피치·긴장해소·리더쉽·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복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욱입니다. 누구나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 전북대학 토론과 편집 담당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감정위원
- 한국스피치·음성학회 전북회장
- 전북대학교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BC, JTBC 출연 및 강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평생교육사 ○심리상담사
- 전주세일 부사장
-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만발' '스피치 노하우' 등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학교명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치료 (주, 야간)	전주, 임실, 완주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 (주, 야간)	전주, 완주, 진안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긴장해소 (주, 야간)	익산, 논산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과 리더십, 스피치지도사(자격증)	군산, 서천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 고급, 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웃음치료 등) (주, 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코칭(야간)(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 야)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정읍시 공고 제 2021 - 224호

### 덕천면 천도소하천 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정읍시에서 시행 예정인 덕천면 천도소하천 정비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제21조(사업인정에 대한 협의 및 의견청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정읍시청(건설과장)  
나. 주 소: 전라북도 정읍시 중로동 234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 업 명: 덕천면 천도소하천 정비공사  
나. 위 치: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도계리 1226번지 일원  
다. 사 업 기 간: 2020. 1월 ~ 2021. 12월  
라. 사 업 내 용: 하천정비 L=0.27km
-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가. 토 지: 덕천면 천도소하천 정비공사  
나. 물 건: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도계리 1226번지 일원  
다. 열 람 내 용: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 등 확인 및 누락 여부  
라. 보 상 조 서: 불입문서 참조
-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021. 02. 04. ~ 2021. 02. 18까지 (15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정읍시청 건설과 하천관리팀 ☎063-539-5833, 5834  
다. 열람내용: 편입토지서(열람장소 비치)  
라. 이의신청: 토지 및 물건주소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동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보상협의 및 지급시기: 감정평가 실시 결과 개별통지 예정**
- 보상금 선정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자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보상가격으로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규정에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표한 보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을 해당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공고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본인이나 자필로 서명하고 인장을 날인(인감증서 첨부)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은 제정등본 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보상절차: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 보상액산정 → 손실보상협의요청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 보상지급 → (협의 불성립 시) → 수용결정 → 보상금공탁

라. 보상금 지급절차: 공익사업유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절차(보상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협의기간, 장소, 보상액 및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 후 보상실시 - 토지: 손실보상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정읍시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보상금 지급

※ 단 토지 및 지장물건에 설정된 권리(근저당권, 압류 및 가압류 등)는 해지한 후 계약체결 마. 보상금 지급방법: 현금 지급(계약 입금)

7. 기타사항  
가. 토지조사 및 지장물건 조사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추후 관계법령에 위반한 지장물건으로 확인되면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주소변동 사항이 있으면 주민등록등본을 우리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주불명, 수취거부 등 개별통지를 하지 못한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공식송달공고 송달을 대신합니다.  
다.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우리시 건설과 하천관리팀에 오셔서 토지조사를 열람하시고 조사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하시기 바라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시면 토지조사 대로 보상대상자를 확정하고 손실보상 할 계획입니다.  
라.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전화 ☎063-539-5833, FAX 063-539-6524 건설과 하천관리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4일 정읍시청